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환기시스템산업협의회 발족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에서는 최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기시스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 환기시스템산업협의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환기시스템산업협의회는 환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동종업계들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내에 발족한 협의체로 삼성전자(주), LG전자(주) 등 환기관련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삼성전자(주)의 윤백상무는 인사말을 통해 차세대 환기시스템산업의 도약을 위한 활동전개 및 회원사 이익증진을 위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초기년도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내의 환기관련 시장은 2006년 1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업무시설의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2004년의 500억원에서 2008년에는 5500억원으로 급격한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환기산업 분야의 기술 및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 간 공동 연구의 진행, 정부 및 국회 등에 대한 정책 건의 등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기시장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 제공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월간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을 제작, 예비창업자 및 수출업체 등 실 수요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월간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으로 2003년 정부로부터 폐기물분야 정식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통계의 날(9월 1일)에는 폐기물 재활용 통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조사 통계는 국·내외 경

제동향, 국제원자재시장동향, 국내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 및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지자체·유관기관 등 1,300여 곳에 배포하고 있으며 통계청 및 공사 통계정보시스템(<http://stat.envico.or.kr>)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동향」에는 세계·미국·EU·일본·중국·국내경제의 동향정보가 수록되며, 「국제원자재시장동향」에는 펄프·국제유가·고철 및 알루미늄의 동향정보가 수록된다. 또한 「국내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 및 전망」에는 지역별 폐지·폐플라스틱·발포스티렌·압축 PET·폐유리병·고철 및 폐금속캔·페타이어에 대한 월별 시장 전망 및 가격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동향 및 국제원자재 시장동향」은 산업자원부·관세청·조달청 등 정부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국내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 및 전망」은 품목별 130여 중간업체에서 제품생산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정보로부터 각각 수집·가공·분석하여 제공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유용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신뢰도가 매우 높다. 아울러 「국내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 및 전망」은 최근 3년 동안의 월별,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을 다차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이용자가 한눈에 재활용품 시장가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환경상품 도우미 “친환경상품진흥원” 개원

우리나라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선도할 전문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지난 9월 9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청사에서 개원기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개원 기념식에는 이재용 환경부장관과 박신숙 차관을 비롯, 곽결호·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역대 환경마크 협회장, 이상영 진흥원장, 친환경생산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진흥원 임·직원 등 내·외빈 약 80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난 '92년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부여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을 제정('04.12)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친환경상품

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환경마크협회를 모태로 설립된 법정법인(재단)으로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정부·민간위원 등 10명으로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구성, 진흥원의 정관 확정 및 임원 선임, 사업계획·예산심의 등 개원을 준비하여 왔다.

진흥원은 원장 소속하에 3개국(경영기획·제품평가·구매진흥) 10개팀으로 구성되어 친환경상품 인증·보급 촉진 업무를 본격 추진하게 되며 ▲환경마크 인증 등 친환경상품 평가 업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친환경상품의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의 개발,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홍보,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친환경상품 정보망 구축, 공공기관 순회 교육과 구매촉진대회를 비롯하여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11.8~11.12, 고양 KINTEX), 친환경상품 인증확대 및 친환경설계기법(에코디자인) 보급·확산, 친환경건축자재 공급망 구축,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환경정보망 운영 업무를 역점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취임한 이상영 초대원장은 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96~'00)과 이사('04~'05),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친환경상품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상품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흥원의 초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반월·시화 지역 악취개선 완충녹지 조성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와 함께 악취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키로 하였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1982년 이후 도금, 피혁, 섬유 등

6,000여 영세 중소기업의 이전 입주와 더불어 주거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전국에서 악취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2004년 전국 악취관련 민원발생(3,910건)의 76.6%가 수도권에서 발생(경기:1,794건, 인천:873건, 서울:143건)하였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완충녹지는 245천㎡로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3년간) 총 사업비 122억원(국비 8,540백만원, 지방비 3,660백만원)이 투자된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악취저감 완충녹지 조성:111.7천㎡, 시화국가산업단지 악취저감 완충녹지 조성:133.6천㎡이다. 완충녹지는 산업단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동되는 공기의 흐름상태를 변화하게 하여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확산시키는 역할』과 『수목에 의한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저감기능』을 하게 된다.

완충녹지의 수목은 호흡 및 광합성작용으로 공기 중의 악취물질(CO₂, CO, NO_x, SO_x 등)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수목이 생산하는 신선한 공기와 방향족 물질인 피톤치드는 악취를 차폐하거나 감쇄시킨다.

※피톤치드(Phytoncide): 수목들이 주위의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공기 중 또는 땅속에서 발산하는 천연의 방향성 항균물질을 총칭하는 말이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완충녹지가 조성되면 실질적인 악취저감과 함께 대기질 개선효과가 커지며,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안산시 고잔동, 시흥시 정왕동 일대 10만 세대의 오래된 악취 민원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울산광역시에서 2005. 7. 13~15(3일간) 미포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에 따른 선암동, 상개동 주민 153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매우좋다·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5%, 「모르겠다」는 응답이 15%이다.

산자부, 『에너지절약 홍보추진단』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최근 고유가상황에 대응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범부처적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홍보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 9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5.8.24) 및 당·정협의('05.9.2)에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홍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추진단을 통하여 관련부처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추진단은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관계부처 국장급(7명), 에너지유관기관장(6명), 시민단체(2명) 등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에너지관리공단(김균섭 이사장)이 기존의 에너지절약 홍보실적 및 평가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이번 홍보추진단 구성은, 기존의 에너지절약 홍보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로 전담해오던 것을 관련부처와의 공조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또한,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참여 및 에너지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던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연계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 “제11대 박결호 사장 취임”

지난 9월 21일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신임 박결호 한국수자원공사 11대 사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신임 박사장은 지난 1973년 기술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공계 출신으로 건설부 상하수도국장, 환경부 수

질보전국장, 기획실장을 거쳐 환경부차관 및 장관을 역임한 수자원·환경 분야 전문가이며, 건설 및 환경 분야 30년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균형 있는 시각과 전문성, 추진력, 리더십 등에서 각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사장은 취임식에 앞서 전 부서를 순회,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새로운 각오로 서로 힘을 합하고 지혜를 발휘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기업으로 거듭나자’고 호소하여, 예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

신임 박사장의 임명으로 수자원공사의 각종 현안 해결과 균형 있는 시각 및 접근방법을 통한 국가물관리체계의 과감한 혁신 등이 빠르고 탄력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공청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실내환경학회에서는 공동주관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연구 용역사업에 결과에 관한 공청회」를 지난 9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웰빙 생활양식의 확산과 더불어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 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정한 실내공기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05.5.31공포, '06.1.1시행)하여 정책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본격 대응해 나아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작년 6월부터 4종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하여 그중 오염물질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14개 제품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고시하였으며, 올해에는 4종 400개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방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

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건축주, 건축사 등에게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2004년 6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환실련, 경남본부, 재난구조대 발족

국내 처음으로 환경단체에서 재난구조대를 발족하여 주목된다. (사)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 경남본부(본부장 윤위식)는 지난 9월 13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전문 기술을 갖춘 청장년 35명으로 재난구조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환실련 경남본부 윤위식 본부장은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복구하며 자연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미국 카트리나 참사처럼 문명과 자연의 충돌로 자연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때에,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미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더욱 실감하며, 재난 구조단 발족을 기회로 자연보호에 모두가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실련 경남본부 재난구조대는 구명조끼 10벌, 에어탱크 5조, 철재절단기 1대, 구명동 3조, 5톤하이카 3대, 굴삭기 3대, 5톤 카크레인 3대, 무전기 4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결시간은 15분 이내로 신속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어 경남지역 일대 자연환경 보전 및 복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 초과 적발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71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한 29개소(점검대상 5.6%)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년도 동 기간의 기준 초과 처리장 61개소(13.2%)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율이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2004. 1. 1일부터 4대강 수계지역에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설개선과 함께 적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초과원인별로는 운전방법 미숙이 16개소로 가장 많으며, 기계설비 장애 7개소, 시설 노후화 2개소, 고도처리 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전 곤란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초과 사례별로 보면 강원도 횡성과 둔내 하수처리장은 유량변동 및 수온저하에 따른 운전방법 미숙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수질기준을 3배나 초과하였으며, 전북 순창하수처리장은 순간적으로 과다 투입된 축산폐수로 인하여 T-N(총질소)이 수질기준을 1.3배 초과하였고, 대규모 하수처리장인 울산용연, 대전하수처리장에서는 소독설비 장애 등으로 총대장균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인 마을하수도(50~500톤/일)의 경우 동 기간 중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226개소(26.9%)나 되어 노후시설개량 및 고도처리공법 적용 등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환경부는 2005년에 692억원, 2006년에는 1,002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57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하수처리 시설 운전방법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시설노후 등으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마을하수도에 대하여는 시설개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